

장보고 정신으로 한중일 우호 다진다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가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장보고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 무역활동을 전개하며, 삼국의 불교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장자(長者)였다. 그는 신라와 일본의 구법승들의 당 유학활동을 돕고, 뜻이 닿는 곳마다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법화사를 세웠다. 1200년 전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삼국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 데에도 법화사상의 영향이 컸다.
 21세기 한·중·일 불교계는 장보고 사상을 계승해 불교문화교류와 경제발전을 꿈꾸고 있다. 한국 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상임이사 천인봉)는 중국 적산그룹, 일본 산사지역 문화관광협력회와 함께 6월 21~24일 장보고가 불사한 중국 산둥성 적산 법화원에서 한중일 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산둥성 적산 법화원에서 진행된 한중일 역사 우호 전승 기복법회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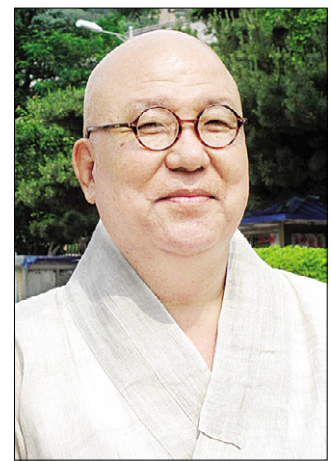
왼쪽부터 시몽 스님, 아미타게 스님, 쉬엔세 스님이 국제 우호를 기원하는 플래카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23~24일 산둥성 위해 화하성(오른쪽), 연태시 남산선원(위)을 방문해 한중일 교유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장보고 법화사상은 삼국 화합 바탕

시몽 스님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근간이었던 법화사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한·중·일 삼국이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바탕입니다.”
 6월 21~24일 한·중·일 문화교류행사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시몽 스님(전라남도 불교협회 회장, 백양사 주지)은 장보고의 법화사상에 주목했다. 시몽 스님은 “해신 장보고는 대륙을 제패한 장기시간과 견줄 만한 인물이다. 그의 활동상과 사상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에 위치한 한반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장보고의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고가 삼국의 문화 및 경제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데는 불교와 경제협력에 이르기엔 업적이 높지 않다. 시몽 스님은 “장보고는 법화사상, 관세음보살 신앙을 바탕으로 해양 교역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친 인물이다”며 “1200년이 지난 지금도 한·중·일이 법화사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이 장보고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민간차원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장보고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법화사 주지를 지냈다. 법화사 주지를 지내면서 장보고에 관심을 갖게 된 스님은 ‘장보고의 법화사상과 관음신앙’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제주도에서 법화사 폐사지 발굴사업을 17년간 전개했다. 스님은 “장보고는 신라 유학승을 지원해 구산선원을 개창한 조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다. 장보고 정신의 계승으로 삼국의 불교문화교류 등을 위해 종단차원의 사업 전개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한중일 최초 우호교류 문화 포럼

해상왕 장보고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한·중·일 국제우호 문화포럼’이 6월 22일 중국 산둥성 영성시 석도 적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대표로 △해상왕장보고연구회 김문경 회장(승실대 명예교수)이 ‘9세기 일본전태상승의 입당과 신라해상’ △박현규 순천향대 교수가 ‘〈당무염선원비(唐無染禪院碑)〉 신자료 소개와 신라인 김경의 활동 의의’ △김병근 동국대 사학과 외래교수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중국으로의 구법 활동’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산둥대학 한국학원 유보전 부원장이 ‘한·중 이민의 역사적 고찰’ △산둥대학 철학과 진경 교수가 ‘전태종의 해양성(海洋性)’을 발표했다. 일본은 산사지역문화관광진흥회의 오오바 노보루 회장이 ‘엔닌 스님 연구과정 및 삼국 관계 발전’을 설명했다.

김문경 교수는 <입당구법승례행기>를 통해 장보고에 대해 직접 언급한 일본 엔닌 스님(圓仁, 794~864) 등 일본 천태 3세 좌주(座主)와 신라 상인의 밀접한 관계를 조명했다. 김 교수는 “엔닌 스님이 838년 입당 후 구법승례를 하는 동안 적산 법화원에서 신라인 스님과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적산 법화원(法華院)은 장보고가 건립한 사찰로 일본 천태종 사 엔닌 스님이 머물렀던 한·중·일 삼국 불교문화교류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김문경 교수는 “엔닌 스님 등 일본의 구법승들이 당에 들어오는데는 신라해상과 신라거류민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엔닌 스님이 당나라에 있는 동안 신라인들은 엔닌 스님의 공행(公行) 취두 업무를 비롯해, 일본 견당사의 귀국, 청이승(淸益僧), 유학승, 상인들의 왕래에서 성지 순례, 선박 알선, 당 곳곳의

신라원과의 연락, 서신교환, 체재경비 전달, 귀중품 보관 등을 도왔다”며 “당나라의 불교발전정책인 화장법난(會昌法難) 속에서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도 신라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문경 교수는 “8~9세기의 신라와 당은 불교, 학문, 미술, 공예 등을 비롯해 민간 교역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며 “선승 1701명의 전

장보고사업회·적산그룹·산사관광협 한·중·일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현 합의

등계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외국 승 43명 중 42명이 신라승이고, 사적에 보이는 승려 이외에도 사적에 이름이 남지 않는 허다한 구법승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규 순천향대 교수는 적산 법화원 외에 신라와 당의 우호교류를 상징하는 산둥반도 위해 문둥시 근우산(崑崙山) 무염선원(無染禪院) 사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최근 <당무염선원비(唐無染禪院碑)> 복원 당시 발견된 파편에서 신라인 김청(金淸)의 활약상이 기록돼 있다. 김청도 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커다란 부를 축적하고 무염선원의 중창 역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박현규 교수는 “아직 폐사지인 무염선원을 적산 법화원처럼 한·중 우호 교류를 상징하는 사찰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문화교류 MOU체결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중국 적산그룹, 일본 산사지역문화관광협력회는 6월 22일 중국 산둥성 적산 법화원에서 삼국 우호증진과 문화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각각 사업단 대표들은 “1200년 전 한·중·일 불교교류를 통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실현한 해상왕 장보고와 자각대사 원인 스님의 우호정신과 불교발전 등 문화교류에 기여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사표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 또, 국민간의 우호증진을 기원하는 타종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술 및 문화교류,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 전통 문화공연, 체육행사, 유적지 답사 등에도 합의했다.
 한·중·일 불교교류대회는 올해 적산 법화원에서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1년 한국, 2012년 일본 순으로 열린다. 한국에서의 행사는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중국에서는 적산그룹과 산둥성불교협회, 일본에서는 산사지역문화관광협력회가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국의 불자들은 ‘제1회 한중일 역사 우호 전승 기복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중국 적산 법화원 주지 쉬엔세 스님, 일본 입석사 주지 아미가다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시몽 스님은 “적산 법화원이 앞으로 삼국을 향해하는 사람들의 자유왕래를 위한 귀의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장보고 정신을 삼국이 계승 발전 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아미가다케 스님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신문화는 발전이 더디다”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삼국 우호증진에 힘쓰자”고 밝혔다.
 중국 산둥성=이삼민 기자 un82@buddhapia.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색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움비 2,500원 (2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www.yangjikut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tak.com

주얼드림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단주·금강저·반지·목걸이·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21-1(6.4mm) 68,200원
 JD162 65,000원
 JD118 (10~10.5mm) 92,4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 제품소개할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교수의 보장)
 •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플 제공할 수 있음)

주얼드림 (주) JEWEL DREAM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저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0-9490
 011-441-9495 www.silverdew.com

건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인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 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집합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인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